

‘엑시트’ 압승…체면 지킨 ‘봉오동 전투’



영화 ‘엑시트’



영화 ‘봉오동 전투’



영화 ‘사자’



영화 ‘나랏말싸미’

‘엑시트’ 840만 ‘봉오동’ 450만
‘나랏말싸미’ ‘사자’ 흥행 부진
6년째 여름 1000만 영화 불발

여름 극장이 한국영화의 흥행 대결이 일단락되고 있다. 제작비 100억 원 규모 대작 4편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8월 극장 관객도 대폭 줄었다. 5년째 계속된 여름 1000만 흥행작은 올해 나오지 않았다.

4파전의 최종 승자는 조정석·임윤아의 ‘엑시트’로 귀결되고 있다. 26일 기준 840만 명을 동원, 올해 한국영화 흥행 3위에 올랐다. 뒤이어 유해진·류준열의 ‘봉오동 전투’가 손익분기점인 450만 명을 넘기면서 체면을 지킨 반면, 송강호·박해일의 ‘나랏말싸미’와 박서준·안성기의 ‘사자’는 각각 95만·160만 명에 그쳤다.

●현실 코미디의 힘…‘엑시트’로 증명

여름 4파전의 희비는 ‘얼마나 새로운지’ 그리고 관객에 웃음을 주는 ‘코믹 카타르시스’가 있는지에 따라 갈렸다. ‘엑시트’의 성공이 이를 대변한다. 이상근 감독은 “20대가 처한 현실이 재난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도시 탈출 재난극을 완성했다. 극한의 위기를 기지와 용기로 극복하는 젊은이들의 통쾌한 질주가 관객의 지지를 받았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여름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코믹 카타르시스를 관객에 준 작품”이라며 “요절복통식 코미디가 아닌 시대와 서민의 애환을 담은 현실적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높은 선호가 올해 초 ‘극한직업’에 이어 ‘엑시트’로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사자’는 엑소시즘에 할리우드 히어로 시리즈를 접목하는 과감한 시도

에도 정작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나랏말싸미’는 역사에 상상을 더한 팩션 사극의 한계를 드러냈다.

●8월 극장 관객, 전년 대비 ‘-800만 명’

올해 8월 극장을 찾은 관객은 25일 기준 2200만2518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다. 지난해 8월(3025만8275명)과 비교하면 약 800만여 명 적은 수치다. 아직 31일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그 격차를 만회할 작품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2012년(2423만8713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7월과 8월 극장가는 한국영화가 흥행을 주도해 온 최대 시장으로 통해왔다. 2014년 ‘명량’부터 지난해 ‘신과함께:인과 연’까지 5년째 어김없이 1000만 흥행

작이 나왔지만 올해는 달랐다. 극장 비수기로 분류되는 5월에 개봉한 ‘기생충’과 ‘알라딘’이 연이어 1000만 관객에 성공한 여파 탓에 여름 관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에 더해 ‘엑시트’가 호평 받았지만 장년층까지 흡수하지 못한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확산한 반일감정의 ‘수해’가 예상된 ‘봉오동 전투’가 뜻밖에 화력이 세지 않은 점도 전체적인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한국영화 관객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영화계에 고민을 안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7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영화 관객은 334만 명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7월에도 10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그마저도 올해는 더 심화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홍진영 ‘가족기획사 설립’ 가능성 부인



홍진영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홍진영이 26일 ‘가족기획사 설립’ 가능성을 부인했다. 홍진영은 SNS에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면서 “소속사가 잘못된 증거가 모두 법원에 제출됐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진영은 소속사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가족기획사 설립을 위한 절차’라는 예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윤상현, 하자 보수 거부” 시공사 주장



윤상현

연기자 윤상현과 작사가 메이비 부부의 집 부실공사 논란이 첨예한 대립을 치닫고 있다. 이들 부부는 19일 방송한 SBS ‘동상이몽2’를 통해 신축한 집의 부실공사를 주장했다. 이에 시공을 맡은 A사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밀 하자를 인지한 7월30일 원인을 규명해 보수하겠다고 했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4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상현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A사의 주장에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으로 대응해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윤균상, 유기건 바자회 동참



강다니엘



윤균상

가수 강다니엘과 배우 윤균상 등이 그린 볼 캠페인의 ‘유기건 바자회’에 동참했다. 29일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유기견을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7월8일부터 한 달 간 연예인들로부터 청바지를 기부 받았다. 기부에는 강다니엘, 윤균상 뿐 아니라 오나라, 오승현, 김가은, 정애연 등이 참여했다. 바자회 수익금 및 물품은 유기견 보호 센터에 전달되고, 유기견 예방을 위한 단편 영화 제작비로도 사용된다.

32kg 감량…몰라보게 달라진 유재환



유재환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 그는 “확실히 살을 뺀 후 성격이 차분해졌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개그맨 박명수의 프로듀싱 팀 ‘지 팍 월드’ 프로듀서로 얼굴을 알렸고, 최근 EBS ‘배워서 남줄라2’ 등에 출연하고 있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32kg을 감량해 화제다. 유재환은 26일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에

방탄소년단,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 다 된 드라마에 시한부 ‘재 뿌리기’

연말 대중가요 시상식 섭외 0순위
기획안 전달 등 BTS 모시기 사활

‘시상식은 늘어나고 방탄소년단은 없고…’

한해 가요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각종 연말 대중가요 시상식이 4~5개월 전부터 난관에 빠졌다. 시상식 출연자의 핵심인 방탄소년단을 아직 섭외하지 못해서다.

4월 발표한 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로 국내 판매량 350만 장(가온차트 상반기 결산)을 돌파하는 등 방탄소년단은 올해 또 다시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이에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 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출연 확답을 주지 않아 각 시상식 주최 측은 애타게 대우하고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10월11일 사우디라 이비아에서 펼쳐는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재개하기 전에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떠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 대중가요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인 방탄소년단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방탄소년단은 대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지만 ‘공식 휴가’라는 점에서 참석하지 못했다.

비교적 시간이 남아 있는 연말 시상식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탄소년단이 이르면 10월경, 늦으면 내년 초 컴백할 예정이라 상황에 따라 활동 시기도 유동적이다.

이런 이유로 가요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후 지금까지는 모든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하며 무대를 꾸몄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시상식 주최 측도 방탄소년단이 무대 구성 등 완성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만큼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들이 출석해할 만한 기획안을 만들어 소속사 측에 전달하는 등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모욕죄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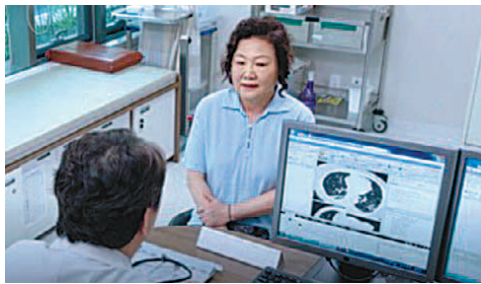
‘세계예말’ 김혜숙, 폐암 말기 선고
개연성 없는 전개…시청자들 불만

KBS 2TV 주말드라마가 또 다시 시한부 소재를 꺼내 들었다. 현재 방송 중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슬프지만 뻔한’ 전개를 예고해 시청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애중’ 관계인 어머니와 세 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긍정적 기운을 선사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종영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어머니(김혜숙)의 폐암 말기 판정 내용이 갑작스럽게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앞서 방송한 ‘하나뿐인 내편’ ‘같이 살래요’ ‘황금빛 내 인생’에도 가족 구성원이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는 등 극적인 상황이 그려졌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누군가의 갑작스런 발병 설정 이전까지 서로를 오해하며 갈등을 빚었던 가족들이 이를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화합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 남은 한 달 동안 그려질 내용이 예상된다는 시선이 나온다. 또 KBS 2TV 주말드라마가 정통 가족극으로 부동의 시청률



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1위를 자랑해 왔지만,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예나 지금이나 통속적인 소재를 매번 등장시키는 비슷한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드라마 평론가인 충남대 국문과 윤석진 교수는 26일 “죽음을 표현하는 시한부나 불치병 소재를 피할 수 없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개연성 없이, 감정의 자극을 위한 설정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시청자를 우롱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준 책임프로듀서는 “조성선 작가가 향후 내용을 한창 집필 중이어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삶과 죽음에 다가가는 표현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전 작품들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활동 중단 선언’ 윤종신, 마지막 무대 오른다

내달 7·8일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가수 윤종신이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마지막 공연’을 연다.

윤종신은 10월 귀국 시기도 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음악을 위한 창작 여행을 해외로 떠난다. 이에 앞서 9월7일과 8일 경기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페스티벌 ‘2019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무대에 오

른다.

윤종신은 음악플랫폼 ‘월간 윤종신’(신곡을 매월 발표하는 프로젝트)이 내년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2년 전부터 ‘이방인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출연해 온 방송 프로그램도 하차 수순을 밟았고, 현재 마지막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엠넷 ‘더콜2’도 9월 중순 끝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업인 가수로서 ‘2019 멜로



윤종신

디 포레스트 캠프’에 출연한 뒤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다. 자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 스토리가 주최하는 무대이면서 매년 출연해 팬들과 만났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윤종신은 그동안 항상 둘째 날 공연을 펼쳤지만, 이번엔 첫날 무대에 올라 70분간 팬들에게 히트곡을 선사한다. 출연 가수(수)별로 50분에서 60분 동안 공연을 펼치지만 윤종신의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

서 70분간 팬들과 만난다. 이날 윤종신이 해외로 떠나기 전 팬들에게 전할 특별한 메시지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종신의 한 측근은 26일 “데뷔 이후 장기 휴가를 한 번도 떠나 신 적이 없었다”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를 창작의 토대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종신은 귀국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측근은 “익숙하지 않은 곳을 떠돌며 이방인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는 윤종신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연 기자